

축산업의 후방연관산업 구조와 발전방안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인배, 송우진,
전문연구원: 이정민)

▣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 축산업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FTA에 따른 시장개방, 국제 곡물가격 상승, 구제역 등 질병의 발생, 축산업에 대한 규제강화, 안전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료산업, 동물약품산업, 축산기자재산업, 수의방역 등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지원이 필수적임. 본 연구에서는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인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자재를 중심으로 산업별 현황과 당면과제, 정책, 상호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음.
- 축산부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축산업과 연관산업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생산-생산형(Ritz-Spaulding) 모형을 이용하여 해당산업의 생산변화에 따른 전산업의 파급효과를 살펴보았음.

▣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결과

- 축산업과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사료산업, 농업용기계는 지난 20년간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우리나라 전체산업 성장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타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축산업과 축산연관산업의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타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축산업 및 축산연관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육류 및 육가공품이 2.93, 양돈이 2.36, 가금이 2.33, 육우가 2.20, 낙농품이 2.20, 농업용기계는 2.12, 낙농이 1.98, 사료는 1.83, 의약품은 1.76으로 타 산업들(도소매 1.66, 금융 보험서비스 1.29, 제조업 1.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유발효과도 육우가 23.5명, 양돈이 23.3명, 낙농이 22.4명, 가금이 21.9명, 육류 및 육가공품 21.3명, 농업용기계

20.0, 기타축산이 18.1명으로 농림수산물(39.9명)과 음식점 및 숙박(30.9명), 도소매(24.2명) 다음으로 높은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2010년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그림2. 2010년 취업유발효과



주1. 생산유발계수는 해당산업의 생산이 1단위 증가함에 따른 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주2. 취업유발효과는 해당산업의 생산이 10억 원 증가하였을 경우의 취업유발효과임.

○ 대부분의 축산업과 축산연관산업의 영향력계수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축산업과 축산연관산업의 발전이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발전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사료산업은 전방연관효과와 후방연관효과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료산업의 발전을 통해 사료산업의 전방산업인 축산업과 후방산업인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도소매업 등이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3. 2010년 산업별 후방연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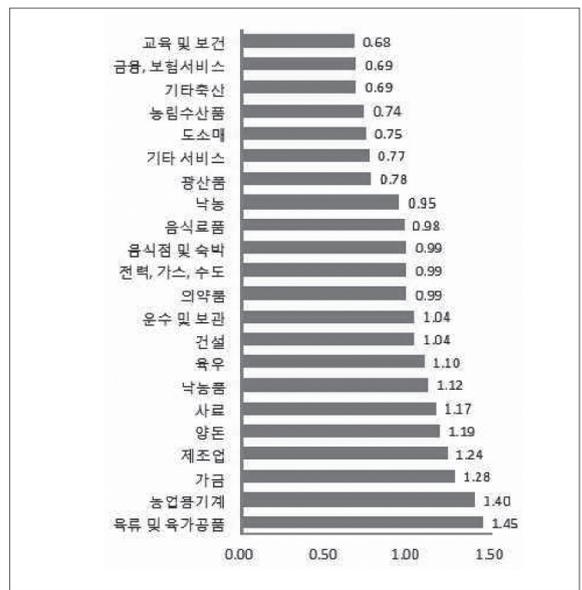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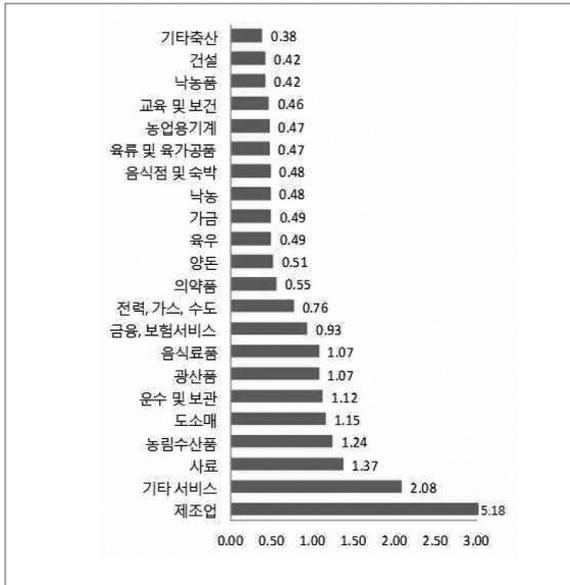


그림4. 2010년 산업별 전방연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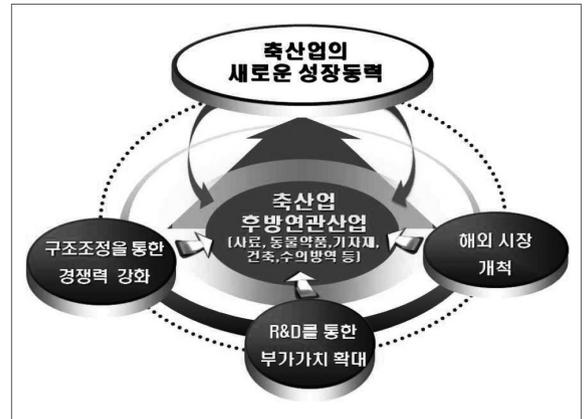


■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발전방향

- 산업연관분석 결과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은 전후방연관효과가 높고 생산유발 효과와 취업유발효과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은 축산업의 성장정체에 대응하여 축산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축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은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의 확대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따라서 사료산업, 동물약품산업, 축산기자재 및 축산건축산업, 수의 방역 등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내실화를 통해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도록 해야 함.
-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이 축산분야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 소규모 영세업체 중심에서 경쟁력 있는 규모화된 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두 번째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축산업과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세 번째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음. 경쟁력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M&A를 추진하여 기업의 규모화를 달성하고, 이러한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활성화와 R&D 강화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우수한 제품과 마케팅 강화를 통해 국산 축산관련제품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함.

그림5.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발전방향



■ 사료산업의 발전방안

- 사료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과 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가격 변동성 관리방안으로 구매방식의 다양화, 수입국의 다변화, 수입원료의 다양화가 있을 수 있으며, 환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선물거래 또는 베이스스 거래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이와 함께 해외농업

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육계와 양돈을 중심으로 사료회사의 M&A, 생산농가와와의 계약거래 확대, 직접생산 확대 등 수직·수평 계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계열화 추세는 생산비용과 유통비용의 절감, 사료생산의 효율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며, 해외 투자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음. 낮은 단계의 계열화로 기업간의 수위탁 생산과 생산제품수의 감축 등을 통해 생산품목을 전문화, 특성화하고 기업경영의 합리화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사료산업은 과거 단순 배합에서 첨단가공기술을 겸비한 고도의 바이오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는 고품질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R&D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함. 또한 국내 사료시장의 정체에 대비하여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해외 사료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 동물약품산업의 발전방안

- 동물약품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시설 투자, 시장 확대가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약사법 체계를 탈피하여 독립된 법령체계를 갖춤으로써 전문성과 산업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음. 동물약품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동물용 생약과 천연물질 개발 등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또한 시설 현대화를 통해 KVGMP의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동물약품 관련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함. 동물약품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현대화의 지원 등 제도적 지

원을 위한 전문조직의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향후 내수시장의 정체에 대비하여 수출시장 개척과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축산기자재산업의 발전방안

- 축산기자재산업은 수많은 영세업체가 난립하면서 기술경쟁보다는 가격경쟁에 치중하면서 자금난과 도산 폐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축산기자재산업의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함. 구조개선자금을 마련하여 영세업체의 폐업을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규모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시설과 축산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이를 통해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제품의 공용화와 호환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그리고 규모화·자동화 시설에 대한 정기적이고 신속한 A/S 체계가 가능하도록 A/S 완전책임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이와 함께 시설에 대한 호환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시스템사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함. 마지막으로 축산기자재산업도 국내 축산업의 성장 정체에 대비하여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세제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